

Section	Description
-----	-----

- | | |
|---|---|
| 1 | 정원, 그리고 축제, 그리고 찬송가, 그리고 그 후 "그녀가 어떻게 정원사들을 떠났는지, 그리고 제미에 대해...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스케일스에서 춤을 추게 되었는지" (YF MS 5.3, 595). 이 초안에서 정원사들이 렌에게 미치는 영향은 렌이 그들 밖에서의 경험과 자신의 정체성보다 더 중요하다. 그녀는 처음에 쓰고 싶은 것이 바로 정원사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. 이 수정은 옛우드가 캐릭터를 어떻게 형성할지 결정하는 과정의 일부이다. 그녀는 주로 렌을 통해 정원사들을 중심으로 다룰 것인가, 아니면 렌이 자신의 이야기의 중심이 될 것인가? 이 상상의 편지는 최종 버전의 소설이 어떻게 렌의 이야기를 전개하는지에 대한 윤곽을 제공한다. 정원사들로 시작하여 스케일스와 테일스로 끝나지만, 결국 렌의 경험과 자신의 정체성을 우선으로 한다. |
| 2 | 렌은 그녀의 "편지가 누구에게도 보내질 편지가 될 것"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. "아담과 이브는 분명히 죽었을 거야"라고 더 명확히 의심하며, 최종 버전에서는 적대자들이 아마도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언급만 있는 것과 달리, 그들이 살아 있을 가능성을 더 의심한다 (YF MS 5.3, 595). 최종 버전의 소설에서 렌의 차별성은 더 설득력이 있다. 그녀는 여전히 아담과 이브가 살아 있을 가능성을 희망하며, 그들이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. 하지만 이 버전에서는 그녀가 더 절박한 심정을 보인다. 그녀는 편지를 마무리하며, "사랑하는 아담, 사랑하는 이브, 용서해 주십시오, 제가 쓰고 싶었습니다. 화내지 마십시오: 이 글은 이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,"라고 생각하며, "그게 제가 당신들에게 말하고 싶은 말이에요. 그리고 그다음에 추가할 거예요: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" (YF MS 5.3, 595). 여기서는 정원사들의 "글쓰기 규칙"에 대한 두려움이 엿보이며, 그녀는 여전히 그들의 용서를 구하고 있다. 그녀는 의식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무시하고 있지만, 이는 그녀의 캐릭터 갈등을 더 깊게 만든다. 그녀의 마지막 문장, "나는 죽고 싶지 않아"는 최종 버전의 서문보다 훨씬 직접적이다. 이 말은 최종 버전에서 렌이 훨씬 나중 |